

# 정례브리핑

2020.4.27(월) 10:4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관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강원도 제진역에서 진행되는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문점 견학해설서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소리책 영문판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작년 9월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해설서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소리책과 영문판을 발간 하였습니다.

이 해설서에는 판문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남북관계 속에서 판문점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판문점 관광코스 해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책은 시각장애인, 노령층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다른 활동 시에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영문판은 주한외교공관 등에 배포될 것이며, 외국인들이 판문점을

방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계속해서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 관련 돼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언론보도에서는 원산에 머무르고 있다고 나왔는데, 또 청와대 관계자도 원산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통일부가 북한 원산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별장에 대해서 따로 분석하거나 특이사항 있는 것 파악하고 있는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위치나 동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등 다양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가 끊이지 있고 않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속 동일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라는 그 입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다른 기관에서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나왔는데요.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재기 관련 보도도 NK뉴스가 쓴 이후로 워싱턴 포스트가 또 다시 한번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며칠 전과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다, 심지어 통조림까지 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관련해서 북한 내 특이동향 관찰되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내 코로나19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관련 보도는 저도 봤고 북한,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북한 매체에서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 시 WHO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WHO에 따르면 북한이 4월 17일(※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7일' → '17일'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WHO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재기, 두 번째 사재기 관련해서는 관련 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판문점 선언 2주년 맞이해서 동해북부선 재추진기념식을 오늘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남한 혼자 참석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일단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동해북부선 추진사업은 그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남북 간 철도협력 재개 노력과 병행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엔 차분히 준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 계속 협의를 해왔던 건데, 이러한 상황과 코로나19 등으로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식

을 별도로 개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오늘 통일부 장관 등이 4.27 계기에 동해북부선 정책 현장을 방문해서 간소한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주년, 판문점 선언 2주년 관련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천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함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번에 재추진기념식을 했는데요,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 남북철도협력 관련해서 북한 측이 저희에 이런 남한 측의 이런 분위기에 호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제가 북한의 호응가능성 등에 대해서 예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간 이런 합의한 사항이나 이런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걱정한 시점에 북한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일부 조간보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관련해서 김연철 장관님께서 비공개 포럼에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통일부 공식입장이라고 봐도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문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통일부 입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끝>